

보도자료

2011년 11월 16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기구담당관 유대선 과장(☎750-1730)
국제기구담당관 안영훈 사무관(☎750-1733) hellohoon@kcc.go.kr

제12차 아태 전기통신협의체 총회, 제주에서 16일 개막

- 아시아태평양 지역 39개국 대표단 및 전문가 200여명 참석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 총회'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번 총회가 8개국 장·차관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39개국 200여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1979년 창설된 AP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로 42개 회원국과 130여개 통신사업자, 협회 등 참관 회원을 두고 있으며,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한국은 APT의 창립멤버로 지난 1984년 제3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6년부터 '02년까지 6년간 舊 정보통신부의 고 이종순 국장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태 지역의 디지털통합과 브로드밴드 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역내 회원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3개년 간 APT 예산을 논의하는 등 APT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노영규 기획조정실장이

이번 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3년 간 APT 총재(President)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총회는 다음 3년 간 APT를 운영할 새로운 사무총장과 차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사무총장 선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규진 과장(현 APT 관리위원회 의장)이 입후보한다.

개막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도지사, 야마다 APT 사무총장, 브라히마 사노우 ITU 개발국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하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태 지역이 ICT를 통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ICT 발전 경험을 아·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흘간의 총회에 이어 제35차 APT 관리위원회가 4일간(11.21~24)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주 APT 총회에 이어 2014년에는 전기통신 분야 세계 최고·최대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전권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 최고 회의를 연달아 개최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위상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의제, 세부 일정 등 상세사항은 APT 웹사이트(www.aptsec.org)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제12차 APT 총회 개최 개요. 끝.

[붙임] 제12차 APT 총회 개최 개요

□ 회 의 명 : 제12차 APT 총회 및 제35차 APT 관리위원회

- **APT 총회(General Assembly)** : APT의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로서 3년마다 개최되며, 사무총장·차장을 선출하고 APT의 일반정책과 원칙 수립, 예산안 마련,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지침 등을 제공
- **APT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 총회가 결정하는 일반정책에 따른 제반 정책, 계획, 규정, 재정규칙 등을 제정하고, 사무국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회의

□ 일정 및 장소 : 2011.11.14(월)~11.24(목) 11일 간, 제주그랜드호텔

회의구분	일 정	기간	주요행사(안)
총회 준비회의	11.14(월)~11.15(화)	2일	○ 총회 의제 사전 논의
총 회	11.16(수)~11.18(금)	3일	○ '12~'14년 전략 및 예산 결정 ○ APT 중요 규정 재개정 ○ 사무총장·차장 선출
관리위원회	11.21(월)~11.24(목)	4일	○ APT 작업프로그램 검토 및 계획수립 등

□ 주최/ 주관 : APT/방송통신위원회

□ 총회 개최식 참석자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제주도 우근민 도지사,
ITU 브라히마 사노우 개발국, APT 회원국 장·차관 10여명 등
40여 개국 200여명의 대표단